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분석

이지영* ·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1.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개요

오늘날 대형 공원은 도시 전체의 환경 및 공간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각 도시는 공원을 통해 도시 이미지와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Corner(2007)는 대형 공원이라는 주제가 오늘날의 설계 분야에서 갖는 시의적절함과 타당함을 논하면서 “large parks are priceless, and those cities that do not have an effectively designed one will always be the poorer”라는 말로 대형 공원의 가치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현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전되고 반환되는 계기를 맞이하여 이를 공원으로 바꾸어나가는 과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용산공원은 서울시 도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미군 주둔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새롭게 태어날 대형 공원이다. 약 2,458,000㎡라는 큰 규모의 땅이 공원화되는 것은 수도 서울에 대표적인 공공 공간이 태동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의 용산공원은 규모, 입지, 장소적 의미에서 다른 도시 공원과 구별되는 특별한 성격과 가치를 지닐 것이다. 용산공원은 외세 침탈과 조국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이 기형적 도시 구조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므로 용산공원은 금단의 땅, 미지의 땅을 되찾는 정체적 회복의 의미를 지닌다. 더구나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미래의 도시 구조 변화와 공간 재편의 촉매제이자 서울을 녹지축으로 연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생태적·문화적 기능을 지닌 지역이기도 하다.

용산기지의 활용 방안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2005년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 연구”가 진행되고 “용산민족역사공원건설추진단”이 설치되면서 공원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2009)는 용산기지를 공원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적 절차로 후속 용산공원화 계획의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원의 물리적인 윤곽을 볼 수 있는 첫 단계 사업이다. 공모는 일반 공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조경학회가 운영과 진행을 담당하였다.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는 2009년 6월 24일 공고되어, 2009년 10월 19일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2009년 6월 25일부터 7월

표 1.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상위 10개 수상작

| 등수 | 제목 | 이름 |
|----|---|---------------------------------|
| 2 | Evolving History | 신용주, 윤희연, 최혜영, 기효순 |
| 2 | 내재된 풍경 Inherent landscape | 최종훈, 양기욱, 권니아 |
| 2 | 인프라 포리스트 파크 Infra-forest Park | 윤용원, 김정주, 박주현, 류하나, 문지웅 |
| 3 | 自然, 자연 __ 꾸미지 않는 아름다움 | 홍근표, 서태경, 강수연, 신유희, 김민선 |
| 3 | A Performative Park for a Landscape City 용산 공원 조성을 위한 전략과 비전 | 유걸, 고주석, 고아네모네, 박인수 |
| 3 | DHZ(De-Humanized Zone) | 유현준, 김연희, 노래원, 김인기 |
| 가작 | 용산, 대한민국 스물한번째 국립공원 | 김상목, 김성우, Annie Phaosawadi, 전은혜 |
| 가작 | Take a Cell __ Divid, Share, Self | 이충기, 박미자, 문상호, 정원채, 김봉기 |
| 가작 | 서울평화공원 Seoul Peace Park | 서현, 고은진, 홍지원, 고석홍 |
| 가작 | Analog Park | 김건영, 김승환 |

21일까지 총 422팀이 참가등록을 하였으며, 10월 12일 최종 작품 접수 결과 총 127팀이 작품을 제출하였다. 2009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심사에서 1등 수상작을 선정하지 못했지만, 3점을 공동 2등으로 선정하였고, 그 외에 3등 수상작 3작품, 가작 4작품, 입선 20작품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2009)의 상위 수상작 10작품을 분석하고, 용산공원의 설계 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II. 분석 틀의 설정

용산 아이디어 공모 설계지침서(2009)는 용산공원의 ‘이념과 비전’을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용산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기존의 부지 조건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장소가 지닌 역사·문화적 특성을 담아 함께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고 운영·관리함으로써, 도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개방형 공원,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지향적 공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용산공원의 이념과 비전

| 구분 | 내용 |
|----|---|
| 이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공원은 역사적 의미를 새로운 미래로 승화시켜 나가는 평화의 장이다. · 용산공원은 이 땅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계승의 장이다. · 용산공원은 모든 국민의 여가·휴식 및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열린 문화의 장이다. |
| 비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공원을 지향한다. · 자연성을 회복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공원을 지향한다. ·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도시 공원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공원을 지향한다. ·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는 열린 공원을 지향한다. |

표 3. 아이디어 구상 시 고려 사항

| 구분 | 내용 |
|----------------------|---|
| (1) 주변 문화시설 등과의 연계 | 인접 문화시설(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 가족공원)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 (2) 녹지체계 구상 | 남산, 한강 등 주변 녹지축을 고려한 녹지체계의 연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
| (3) 단계별 조성 방안 | 진화하고 성장하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별 방안과 전략을 제안하여야 한다. |
| (4) 북쪽 부지와 남쪽 부지의 연계 |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는 북쪽 부지(North Area)와 남쪽 부지(South Area)는 일체의 부지로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5) 주변 도시계획과의 유기적 연계 |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
| (6) 지하 공간 및 지하철 연계 |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 현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
| (7) 역사성 보전 및 시설물 활용 | 용산공원 부지 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에 대한 보전 방안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
| (8)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공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
| (9) 국민 참여 방안 | 국민들이 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념과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고려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주변 문화 시설 등과의 연계, (2) 녹지체계 구상, (3) 단계별 조성 방안, (4) 북쪽 부지와 남쪽 부지의 연계, (5) 주변 도시계획과의 유기적 연계, (6) 지하 공간 및 지하철 연계, (7) 역사성 보전 및 시설물 활용, (8)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9) 국민 참여 방안.

본 연구는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설계지침서가 제시한 ‘이념과 비전’ 및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설계 쟁점을 도출하였다.

1) 열린 접근과 과정 중심적 설계, 2) 주변 도시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설계, 3) 지속적 운영과 생성의 작용을 통한 설계, 4) 부지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살리는 설계.

본 연구는 이러한 네 가지 쟁점과 대형 공원 설계의 과제

“경험적·물리적·사회적 측면과 문화적·생태적·운영적 측면(Corner, 2007)”을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 틀을 설정하고, 상위 10개 수상작을 분석하였다.

- 1) 단계별 계획과 과정적 설계
 - (1) 후속 계획/설계의 가이드라인 마련
 - (2)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정책과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

- 2) 주변 도시 구조 및 조직의 고려
 - (1) 서울 도시 구조 교정의 매개
 - (2) 부지 주변 계획안을 컨트롤하는 관리 방안 구축

- 3) 지속가능한 생성적 설계
 - (1) 라이프 스타일과 공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는 장기적 프로그램
 - (2) 정치, 정책 환경, 재원 조달 등을 고려한 조성 전략

- 4) 부지의 정체성 구현
 - (1) 역사적 자원의 재발견과 프로그래밍
 - (2) 부지 조건(자연 환경, 역사 자원, 기존 시설 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III. 수상작 분석

“과정적/단계별 접근, 기존의 건축물과 땅의 성격에 대한 관찰, 역사의 기억과 치유, 주변 도시 조직과의 연계 등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는 큰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임승민, 2009)”는 심사평에서 볼 수 있듯, 전반적으로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공모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공모의 배경, 이념, 비전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계적인 조성 방식과 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진화하고 성장하는 공원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 주변 지역과 연계 맺으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공원을 지향한다는 점 등이 공통적이다.

1. 단계별 계획과 과정적 설계

주한 미군 기지를 공원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참여한 정치, 경제, 사회적 특수성을 지닌 국가적 사업의 성격을 띤다. 대상지는 초고밀도의 서울에 남아 있는 초대형 오픈스페이스로 개발 및 보존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대형 공원의 설계가 과거와 다를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은 “대조적이고 대립적인 집단들로 얽혀 있는 다중의 이해 당사자들과 관련될 수밖에 없으며, 많은 경우 복잡하고 보수적인 관료들에 의해 조작”(Corner, 2007)되기 때문이다. 수상작 대부분은 공원에 대한 물리적인 형태 제안보다는 공원의

성격과 개발 방향을 유보하면서 장기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수상작의 공통된 특징은 대상지의 조건을 존중하고 용산 공원 부지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한 해석에 기반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특히 2등 수상작 세 작품을 살펴보면, 공동 2등 수상작으로 선정된 'Evolving History'는 기존의 지형 조건과 건축물의 기억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진화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적 계획이다. 다른 2등 수상작인 '내재된 풍경 Inherent Landscape'은 공원의 진화 과정을 5단계로 계획하여 시간적·공간적 여지를 남기고 공원 내부의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는 점진적 조성 전략이다. 또, 다른 2등 수상작 'Infra-forest Park' 역시 남산에서 남쪽 대지 경계선까지 인공 숲의 띠를 만들고, 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주변 지역 여건과 미래의 도시 개발 계획에 반응하는 단계적 공원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A Performative Park for a Landscape City' 용산 공원 조성을 위한 전략과 비전은 시간에 따른 발전 단계를, '自然, 자연 __ 꾸미지 않는 아름다움'은 스스로 자라는 공원의 개념을 통해 단계별로 과정적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가작인 '용산, 대한민국 스물한번째 국립공원,' 'Take a Cell __ Divid, Share, Self,' 'Analog Park'에서도 성장하고 진화하는 공통적인 개념과 전략이 보인다.

2. 주변 도시 구조 및 조직의 고려

대형 도시 공원을 논하는데 있어 도시를 논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Czerniak, 2007a). 수상작들은 다양한 공원 조성 접근 방법을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본 방향은 내부의 시설 및 자연 환경을 보전하면서 녹지 위주의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외곽은 기존 도시 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도시와 공원의 경계를 없애고 하나로 통합하는 landscape urbanism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구자훈, 2009).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서 Jacobs(1961)는 대규모의 단일 토지 이용은 주변 도시 주거 환경의 위협과 침체를 가져오며, 공원의 내부로부터 경계로 그 이용을 가져가는 것은 공원과 도시 사이의 활발한 연계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volving History'는 과거-도시 조직과의 접점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전이의 공간, 미래-녹지축으로 구성된 내부의 공원으로 스며드는 도시적 관점의 접근법이다. 도시와 공원이 유연하게 결합되는 융합과 진화의 공간을 제안하고 있다. 반대로 'Inherent Landscape'는 경계를 먼저 허물고 녹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남측 경사지에 거점공원을 조성하고 기존의 시설을 블록별로 공원화시키는 접근법이다. 'Infra-forest Park'는 남산-용산공원-한강을, 가로 세로 10m의 격자형 숲을 기본 모듈로 설정하고 폭 200m의 숲 밴드를 통해 도심 속의 녹지축으로 적극적 연계를 시도한다. 용산공원이 서울의 자연적 인프라스트럭처로 기능하면서 주변 지역 여건에 반응하는 7개의 공원으로 조성된다. 3등작 'A Performative Park for a Landscape City

용산 공원 조성을 위한 전략과 비전'은 대지 주변의 도로를 따라 공공 시설물을 배치하고 중앙은 공원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로를 이용하여 용산공원의 영역을 한강과 연결하여 규정한다. 다른 3등작 '自然, 자연 __ 꾸미지 않는 아름다움'은 길을 테마로 하여 새롭게 생성되는 공원과 도시의 활동들을 담아내려 한다. Meyer(2007)는 부지 본래의 이야기와 관계 맺기 위해 사용하는 형태적·공간적·시각적 전략에 대해, 생태와 기술, 과거와 현재, 도시와 야생 간의 경계가 해체되어 간다는 점을 논한 바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참여적 설계의 접점이다.

3. 지속가능한 생성적 설계

대형 공원의 '지속가능성'은 생태적 측면, 재정적 측면, 프로그램 측면, 커뮤니티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박근현과 배정환, 2008). 'Evolving History'와 '내재된 풍경 Inherent Landscape'은 단계적으로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계획되 공원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3등작 '自然, 자연 __ 꾸미지 않는 아름다움'은 공원을 채우는 공간이 아닌 비움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자연의 상태와 인간의 활동으로 채워나가는 참여적 방안이다. 'A Performative Park for a Landscape City' 용산 공원 조성을 위한 전략과 비전' 역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전략과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물리적 계획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초기에는 용산공원의 담장만 허물고 기존 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하게 한 후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입장이다. 역시 공동 3등작인 'DHZ(De-Humanized Zone)'도 2060년까지 개발을 유보하고 중심부 44만평의 공원 내부를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자는 안으로, 후세에게 결정권을 양보하고자 한다. 세 작품은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시점에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계획을 유보하면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정치, 정책 환경, 자원 조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 부지는 새로운 자원 조달 전략을 요청한다. 그러한 부지에서 지속가능성은 낮은 유지 관리 비용과 자연화와 같은 경제적 수단의 부산물이 된다. 사회적 투자와 공공 자본의 투입은 성공적인 설계 프로세스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Czerniak, 2007b).

'커다란 그릇,' '보자기' 등의 은유적 도구나 'Peace Park,' 'Analog Park' 등 이미지의 소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프로그램(program)과 작동성(operation)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며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4. 부지의 정체성 구현

수상작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부지의 정체성 구현이라는 정

점은 Czerniak(2007a)의 “가독성(legibility)” 개념과 관련된다. 공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원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독성의 개념은 설계로부터 설계 프로세스로까지 확장된다. 스스로 반응하고 작동하는 시스템의 구현은 탄탄한 정체성으로 보여질 것이다.

수상작들은 기존의 도시 조직과 구조물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단계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나가자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Evolving History’는 건물들은 최소한의 개보수 과정만을 거쳐 기존 가로망과 건축물을 보존하되, 건축역사박물관과 같은 문화 기반시설로, 외곽과 중앙부 사이의 전이지역은 과거의 건물을 부분적으로 해체 및 재생하여 개방된 시민의 공공장소로 활용한다. ‘내재된 풍경 Inherent Landscape’은 용산기지가 담고 있는 역사의 흔적을 ‘내재된 풍경’으로 정의하여 미군기지는 빠르게 개방하여 용산기지가 갖추고 있는 도시의 인프라는 활용하고 공원을 만드는 과정은 느리게 하자고 제안한다. ‘용산, 대한민국 스물한번째 국립공원’은 건물의 구조체나 지하층, 상하수도 등이 야생 동식물에게도 생존에 적합한 서식처 및 생태계 네트워크를 제공한다고 보아, 역사의 흔적으로써 기존 건물을 존치시키고 공원 내부를 자연 상태로 두는 구상안이며, ‘DHZ(De-Humanized Zone)’는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통제하여 도시 속의 원시성이 살아있는 자연 생태공원을 만들자는 더욱 강력한 안이다. ‘Analog Park’는 기존의 건축물과 철도를 활용하여 그 흔적에 아날로그의 심상을 담고자 한다.

IV. 결론

이상에서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용산공원과 같은 대형 공원의 조성 경향과 설계적 쟁점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 계획과 설계보다는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유보적 접근’을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과 지형을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자는 여러 수상작의 기본 관점인 것이다. 대형공원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하고 변화하는 사회, 문화, 기술, 정치적 열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즉 “탄력성(resilience)”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Czerniak, 2007a).

둘째, 도시는 악역, 자연은 선황이라 생각하면서 특히 전통적인 공원=자연이라는 오랜 등식에서 벗어나 도시 조직과 건축물을 역사적 장소성을 드러내는 계획 수단이 이용되었다. 보

존과 개발 사이의 조화, 생태와 환경에 대한 입장을 도시적 맥락과의 관계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변화를 수용하고 촉진하는 전략적 설계를 실행하기에 앞서 조사와 분석, 부지 조건의 면밀한 해석에 바탕을 둔 보존과 재생을 위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적층된 복잡성에서 어떤 조건을 취하고 어떤 조건을 버려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의 계획과 조성은 물리적 요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문화·사회·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복잡성(ccomplexity)의 문제이다. 공원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다양한 사회적 세력이 물리적 세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또한 그것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뛰어난 사례”(Cranz, 1989)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공원 혹은 상류층의 마당으로 전락하여 공원의 의미를 퇴색시킬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50년간 급속한 성장의 결과 서울의 노른자 땅이 된 용산기지는 외부의 변화와는 무관한 이방지대로 남아있다. 용산 공원은 역사,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의 도시 공간에 관한 첨예한 모든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김성홍, 2009). Corner(2007)는 “time for the reinvention of large parks”라고 말하며 새로운 공원의 “재발명”을 과제이자 기회로 부각시킨다. 관리, 유지, 비용, 안전, 프로그래밍, 대중 정치 등에 예측된 설계, 형태, 표현, 프로세스를 어떻게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Corner(2009)의 말을 빌리면, 이 문제는 이 시대의 조경 설계에 주어진 “도전”이다.

인용문헌

1. 구자훈(2009)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전에 관한 소견.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및 토론회.
2. 김성홍(2009)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심사하고 나서.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및 토론회.
3. 박근현, 배정환(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설계공모에 나타난 대형 공원의 설계 전략. 한국조경학회지 36(5): 13-25.
4. 임승빈(2009) 심사평. 용산공원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및 토론회.
5. Corner, J.(2007) Foreword. In J. Czerniak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6. Cranz, G.(1989) The Politics of Park Design: A History of Urban Parks in America, MIT Press, pp.11-14.
7. Czerniak, J.(2007a) Speculating on Size. In J. Czerniak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19-34.
8. Czerniak, J.(2007b) Legibility and Resilience. In J. Czerniak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215-251.
9. Meyer, E.(2007) Uncertain Parks: Disturbed Sites, Citizens, and Risk Society. In J. Czerniak and G. Hargreaves eds.,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